

청동기시대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산지추정

황 창 한 *

< 목 次 >

- | | |
|----------------------------------|----------------------------|
| I. 서론 | 1. 이단병식석검 |
| II. 남한의 지질과 혼펠스 | 2. 유절병식석검 |
| 1. 지질학적 정의 및 특징 | 3. 일단병식석검 |
| 2. 고고학적 특징 | 4. 유경식석검 |
| III. 석검제작용 혼펠스의 산지 및 제작지 추정 | V. 혼펠스제 석검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모델 |
| 1. 울산권 | 1. 제작 |
| 2. 고령권 | 2. 유통 |
| 3. 대구권 | VI. 결론 |
| 4. 소결 | |
| IV. 마제석검의 단계별 재질변화를 통한 혼펠스산지의 이용 | |

요 약

청동기시대 마제석검은 출현부터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석제품이다. 이단병식 석검은 주로 흑색이암을 사용하여 각 집단에서 제작하지만, 이후는 혼펠스로 제작하여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혼펠스 산지는 남한지역에서 고령의 의봉산 일대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혼펠스제 석검의 제작지는 산지 주변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석기제작장으로 볼 때 고령 일대로 비정된다. 혼펠스제 석검은 유절병식석검부터 유경식석검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유절병식석검 단계부터 고령의 혼펠스산지를 석검제작에 본격적으로 이용하였다. 일단병식석검은 송국리문화가 성립되어 확산되는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이 단계부터 이곳에서 제작된 혼펠스제 석검은 본격적으로 송국리문화권으로 유통된다. 고령과 대구지역은 석기제작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상정되는데 석검의 쇠퇴기 이후에는 생산, 가공 중심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석검의 제작집단은 유절병식석검을 제작했던 재지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 대구지역에서 확인된 송국리문화 집단의 석기 제작장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기술이전이나 분업의 가능성이 추정된다. 특히 대구지역의 송국리문화 취락은 대부분 석기제작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전업집단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제작된 석제품은 고령, 대구를 중심으로 내륙에 입지한 송국리문화 집단을 전초기지로 삼아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마제석검, 혼펠스, 산지, 이암, 석기제작장, 유통, 교류

* 울산문화재연구원

접수일 : 2011년 10월 8일 심사완료일 : 2011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2일

I. 서론

한국 고고학은 국토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1980년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개발에 따라 촉발된 발굴조사로 인해 다양한 자료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연구성과는 타 시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비약적이라고 할만하다. 청동기시대의 연구는 주로 유물의 분석을 통한 편년 및 계통을 파악하려는 노력에 집중하였으나 현재는 취락고고학 및 지역성에 관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개별 유물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경향은 주로 토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석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제작방법이나, 사용흔 분석, 산지추정 등에 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 중 석재의 산지추정이나 이를 통한 교류 등에 관한 분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석기의 산지추정에 대한 연구는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의 경우 흑요석의 산지를 추정하는 논고가 있으며, 청동기시대는 근래에 들어 석제유물의 분석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검토를 통해 산지를 추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¹⁾. 석제품은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암석을 바탕으로 도구에 따라 효율적인 석재를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특정 지역에서 산출되는 암석으로 제작된 석기의 확인은 교류의 증거로서는 더없이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유물의 산지추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고고학적 해석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키워드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추정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황창한 2007).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석제품에 대한 암질동정이 불명확하거나 획일적으로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석기를 통해 산지 및 유통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지에 관한 연구성과는 지질학 등의 분야와 학문적 연계가 이루어졌을 때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남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 중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석재로서 소위 혼펠스가 있다. 필자가 실견한 바에 의하면 혼펠스계 유물은 영남지역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한지역 전역에 걸쳐 확인되는데 주 분포권은 영남지역이며 기타 지역으로 갈수록 빈도가 낮아지는 양상이다. 그런데 지질도를 검토한 결과 혼펠스는 영남지역에서만 특수하게 산출되는 암석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모암에서 이탈되어 하천을 통해 운반된 범위까지 포함하면 좀 더 광역대에 걸쳐 분포하지만 석검과 같이 길이가 긴 유물의 경우는 일반 礫石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해 특정산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론을 검증한다면 고고학적으로 석검의 생산지와 유통에 관한 문제를 논

1) 현재까지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손준호(2010)에 의해 정리된 바 있으므로 참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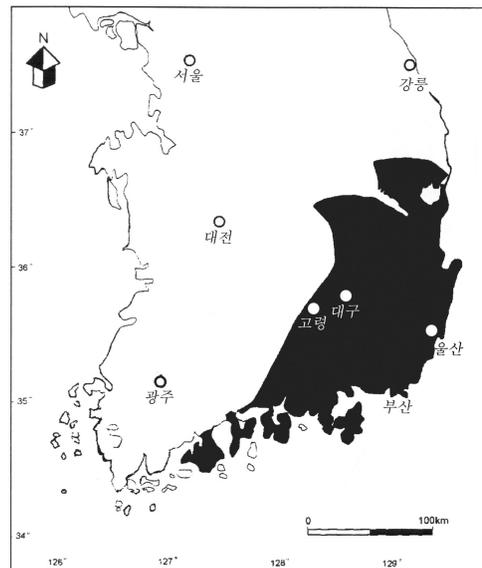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의 목적은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석제 유물 중 혼펠스로 제작된 마제석검의 산지와 제작지를 확인하고 유통 및 교류에 관한 문제를 시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영남지역의 지질에 대해 검토하고 혼펠스에 대한 정의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제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로 산출되는 혼펠스 산지와 석기제작장을 확인하여 제작지를 추정하고자 한다. 결론으로서 혼펠스제 석검을 중심으로 석제품의 유통에 관한 접근을 시도해 보겠다.

II. 남한의 지질과 혼펠스

1. 지질학적 정의 및 특징²⁾

혼펠스는 퇴적암류가 고온 저압형 접촉변성작용³⁾을 받아 주로 화성암의 관입체 주변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혼펠스는 접촉대의 주변에 형성되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나타난다. 조직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높은 열로 인해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 매끈매끈하고 치밀하며, 구성 광물들이 치밀하게 짜여진 ‘모자이크’ 상의 조직을 나타낸다⁴⁾. 접촉변성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암석은 母巖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혼펠스는 주로 이암·사암이 변성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혼펠스라고 지칭하는 암석은 점토질 암석인 이암, 세일이 접촉 변성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런 혼펠스가 나타내는 조직은 미세한 입자가 치밀하고 단단하며 방향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런 조직을 ‘혼펠스 조직’이라고 부른다.

혼펠스는 도면 1과 같이 경상분지에만 분포하는데, 백악기 하양층군에 해당하는 진동층의 퇴



도면 1. 남한지역의 혼펠스 분포도
(대한지질학회 1999에서 수정)

2) 양승영(1998), 안진상 외(2000), 정창희(2006) 등을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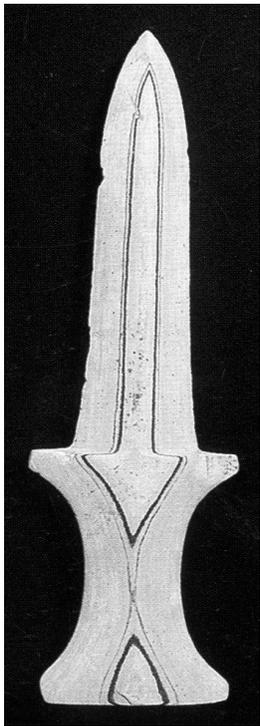
3) 변성작용에는 접촉변성작용과 광역변성작용이 있다. 광역변성작용은 고온 고압형 변성작용으로 조산 운동에 의해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난다. 높은 열과 더불어 높은 압력으로 엽리가 발달하며 편리, 편마조직 등의 엽리 조직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인 암석으로는 편암, 편마암 등이 있다.

4) 설탕을 불에 녹였다가 냉각하면 입자가 투명한 고체로 재결정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적암대와 화강암이 관입한 부분에서 확인된다⁵⁾.

2. 고고학적 특징

혼펠스는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여 날을 세우는 도구에 적합하다. 때문에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석기를 제작하는 석재로 사용된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까지 사용되는 석재는 石刃을 제작하거나 소규모 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것이므로 하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갈을 이용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석검과 같이 길이가 긴 석기의 경우는 자갈로 제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혼펠스가 판상으로 노출된 노두 또는 직접 산지의 심저에서 채광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혼펠스산지의 확인은 석검제작지의 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⁶⁾.



도면 2. 혼펠스제 석검

유적에서 출토된 석제 유물 중 혼펠스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색조와 표면의 부식 상태이다. 본래의 혼펠스의 색조는 암흑색, 암청색 등을 띠지만 유물에서 확인되는 표면색조는 회백색을 띠며, 손톱으로 누르면 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풍화된 상태로 출토된다⁷⁾. 그러나 속심은 이와는 상반되는데 간혹 발굴도중 파손된 석기의 단면에서 신선한 암흑색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표면이 풍화되어 출토되는 석제유물로는 안산암계통이 있으나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산암으로 제작된 석검은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간과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만 숙지한다면 석재에 대해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혼펠스제 유물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혼펠스제 유물 중 도면 2와 같이 표면에 결이 확인되는 것이 다수 확인된다. 이것은 혼펠스가 풍화되면서 모암인 퇴적암의 성질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제작 당시에는 차이가 희미하지만 부식되면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석검의 경우 이러한 층리가 잔존하는 석재를 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퇴적암의 층리가 잔존해 판상으로 제작이 용이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5) 이러한 분포권은 화강암의 관입에 의해 혼펠스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광역적인 범위이며, 실제로 혼펠스가 산출되는 부분은 대구, 고령, 울산권으로 압축될 수 있다.

6) 지질도상의 분포와 현장의 암석 산출상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 답사를 실시하였다.

7) 유물에서 혼펠스의 표면부식과는 달리 퇴적암인 이암계통의 유물은 표면부식이 진행되지 않고 흑색, 자색 또는 청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Ⅲ. 석검제작용 혼펠스의 산지 및 제작지 추정

고고유물에서 확인되는 혼펠스제 석기류로는 석검, 석촉, 주상편인석부류, 편인석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남지역의 경우 석검과 석촉은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혼펠스의 빈도가 높아지며, 주상편인석부류와 편인석부는 약 95%이상이 혼펠스로 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혼펠스제 석기의 제작은 일반적으로 인근 하천에서 석재를 조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영남지역에서 혼펠스의 산지는 모양이 있는 곳과 수계에 의해 이동된 범위를 포함하면 비교적 광범위에 걸쳐 산지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본고에서 마제석검용 석재라고 지칭하는 것은 일반 소형석기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몇 가지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어야만 제작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기에서 청동기시대 석기의 제작에서 양극기법이 주요한 기법임을 주장한 바 있는데(黃昌漢 2009) 이러한 기법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미완성마제석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그런데 마제석검의 제작기법을 복원하던 중 이암류의 퇴적암은 판상으로 박리가 용이해 비교적 석검 제작이 간단하였다. 그러나 혼펠스는 암질이 매우 견고해서 하천에서 확인되는 원마도가 좋은 礫石의 경우는 얇게 박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일반적으로 30cm 전후로 확인되는 석검을 제작할 만한 혼펠스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⁸⁾. 따라서 석검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와 형태를 갖춘 혼펠스 산지의 확인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산지 주변에서 석기제작장이 확인된다면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석검제작용 혼펠스의 특징을 인식하고 영남일대의 하천과 路頭 일대에 대해 수차례 답사를 실시하였다. 답사결과 영남지방에서 혼펠스의 산지는 울산권, 고령권, 대구권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혼펠스의 산출상태와 주변유적에 대한 상세는 다음과 같다.

1. 울산권

영남지역의 동남부에 해당하는 울산지역은 지질적으로 많은 혼펠스가 분포한다. 특히 신라통에 해당하는 울산층내에는 이러한 혼펠스가 안산암, 화강암, 유문암 등과 혼재하는데 여기서 퇴적되어 하천을 따라 운반된 혼펠스가 넓게 분포한다. 그러나 울산층은 신라통에 해당하는 퇴적대로서 노두에 혼펠스가 큰 암반을 이루어 노출된 곳은 없으며, 주로 하천에서 자갈로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천에서 확인되는 혼펠스역의 크기는 20cm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석검제작용 석재로서는 부적합하다. 최근 두서면 두동 일대에 혼펠스 채석장이 개발되었으나 표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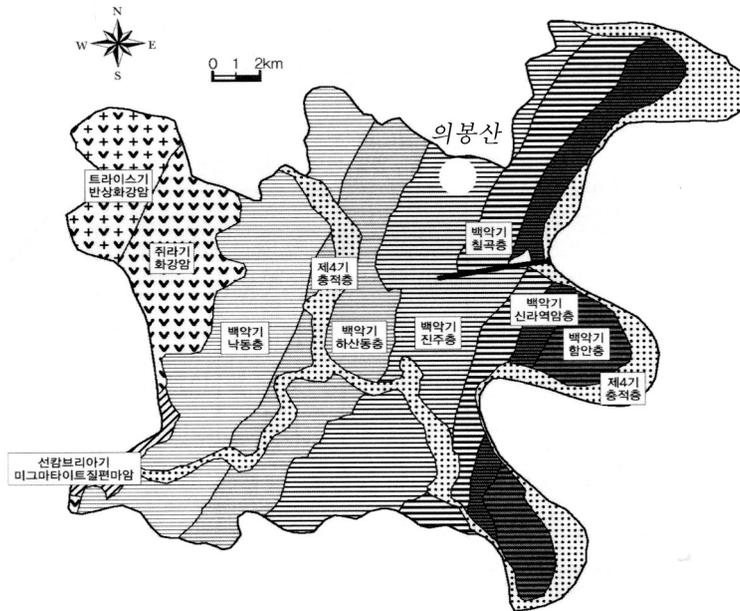
8) 礫石의 경우에 석검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인 30cm를 넘는 것도 간혹 확인되나 대부분 내부 균열로 인해 장신의 석검을 제작하는 것은 어렵다.

서 수십미터를 하강해야 신선한 암반이 확인되므로 청동기시대에 이용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석기제작의 흔적은 태화강 중류지역의 단구에 형성된 울산장 검유적(울산문화재연구원 2005·2006)을 들 수 있다. 주거지 내에서 많은 박편이 확인되지 않아 석기의 제작은 하천변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며 주거지에서는 간단한 고타나 마연만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된 혼펠스계 미완성품은 대부분 석부류로 내수 또는 지역집단 내에서 소규모 유통을 위한 석기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고령권

고령은 본고에서 가장 주목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고령은 청동기시대의 지식묘가 다수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기로 추정되는 암각화가 확인되어 학계에 알려진 바 있다. 고령지역에서는 특히 운수리 일대의 청동기시대 석기제작장 및 석재의 산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중환 2008). 고령의 북쪽에 위치하는 운수면의 의봉산(535m)은 성주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이 일대의 지질은 백악기 하양층군의 신라역암, 철곡층 그리고 동충군의 진주층, 하산동층, 낙동층이 남북으로 협재하여 변성암이 조성되기에 양호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으로부터 진주, 고성까지 넓게 분포하는 지역에서 혼펠스로 변질된 암석대는 극히 부분적으로 확인되어 현재 발행되어 있는 지질도에 누락



도면 3. 고령군의 지질과 의봉산(이보영 2008에서 수정)

되어 있을 정도이다. 의봉산 일대가 혼펠스산지로 확인된 것은 운수리 석기제작장이 확인된 후 석재의 산지를 찾기 위한 주변답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의 혼펠스는 의봉산을 중심으로 노두와 하천에 노출되어 있는데 양측으로 갈수록 변성이 약하게 진행되어 점진적으로 퇴적암과 협재하는 양상이다. 의봉산 일대의 혼펠스는 필자가 직접 답사한 결과 특이하게 테일러스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질학에서 테일러스(talus)란 崖錐라고 번역되는데 급한 경사면에 형성되어 있는 암석의 균열된 틈이나 절리 속으로 유입된 수분이 빈번한 동결 또는 용해로 인하여 경사면으로부터 낙하된 암석들이 경사면 아래에 쌓여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이곳의 혼펠스 테일러스는 판상으로 박리되어 퇴적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길이가 50cm 이상인 것이 다수 확인되고 두께도 5cm 이내부터 20cm를 넘는 것까지 다양하다. 즉 이곳의 혼펠스 産狀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석검을 제작하기에 알맞은 크기로 자연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곳으로 판정할 수 있다(도면 4). 이러한 석재의 산출과 더불어 고령일대에서 확인된 석기제작 유적인 운수리유적과 대흥리유적, 쾌빈리유적을 검토해 보겠다.



도면 4. 1·2: 고령 운수리 유적에서 수습한 실제유물로 복원한 것임 (고령대가야 박물관: 필자촬영),
3: 의봉산에서 채집한 판상의 혼펠스 석재와 실제마제석검과의 비교

1) 운수리 석기제작장 유적

이 유적은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진 유적으로 봉평리 순평마을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유적은 논으로 경작되고 있었는데 반경 30m 정도의 범위 안에서 석기제작시 생성된 박편이 무수히 산재하고 있다⁹⁾. 또한 아직 가공되지 않은 판상의 석재와 받침돌, 망치돌 등이 확인되어 석기제작장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운수리 석기제작장은 지금까지 주거지 내에서 소규모로 확인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유적의 범위와 수 만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박편으로 볼 때 상당기간 동안 대량의 석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집단에 의해 운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곳의 석재는 유적으로부터 북쪽으로 4km에 위치한 의봉산과 주변 하천에서 조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신종환 2008). 이러한 대규모의 석기제작장은 한 집단에서 수요를 목적으로 운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필자는 석기제작장의 규모와 주변에 인접한 의봉산의 테일러스층에서 산출되는 판상의 혼펠스 산지로 볼 때 고령일대가 혼펠스제 마제석검 및 석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해 유통을 목적으로 운영된 청동기시대의 석기제작장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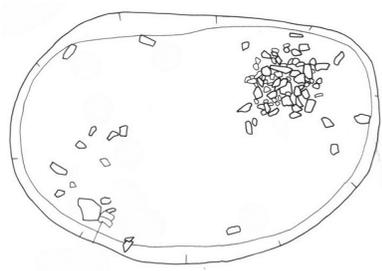
2) 고령 대흥리 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대흥리유적은 의봉산에서 동남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하천변의 나지막한 구릉말단부로 석관묘와 수혈유구, 집석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중 집석유구는 의봉산 일대에서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상의 혼펠스 원석과 박편이 산재하는 점으로 볼 때 석기제작장으로 추정되며, 수혈유구는 석기제작시 발생한 박편을 폐기한 폐기장으로 추정된다. 운수리유적 보다는 소규모지만 이 유적을 통해 의봉산 일대의 하천변에서는 석기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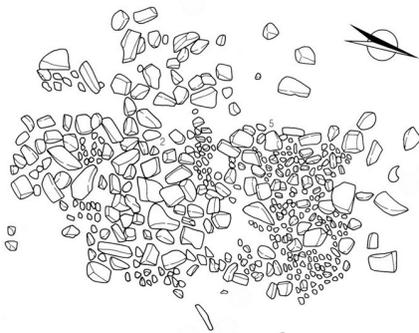
3) 래빈리 유적(대경문화재연구원 2009)

래빈리유적은 고령읍의 북쪽에 위치한 대가야고등학교의 남쪽편에 해당한다. 대규모 석기제작장이 확인된 운수리유적은 본 유적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중앙에는 구릉으로부터 형성된 소곡이 남쪽의 하천을 향해 형성되어 있다. 이 곡부를 중심으로 주변에 송국리형주거지와 석관묘, 구상유구, 석기제작지 등이 확인되었다. 석기제작지는 장축 6.4m, 단축 4.0m 정도의 범위에 다량의 혼펠스제 몸돌, 박편이 확인되었다. 또한 주거지에서는 지석과 미완성석기가 출토되었고, 구상유구에서도 다수의 혼펠스제 박편과 미완성 석제품이 확인되어 석기제작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9) 현재의 대략적인 범위이고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광역의 범위에서 확인될 것으로 추정된다.



0 1 2m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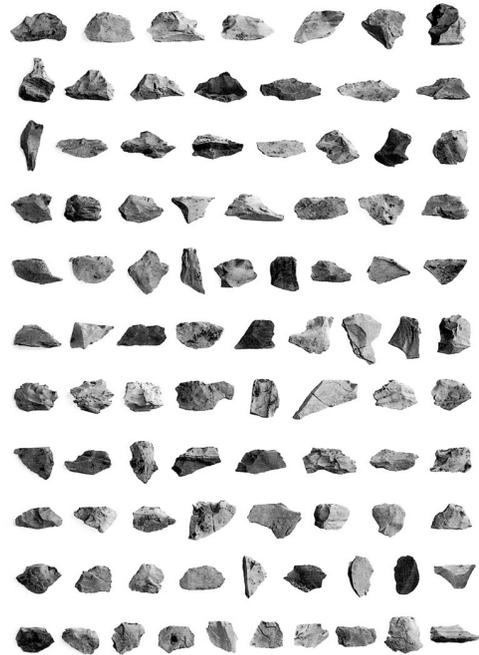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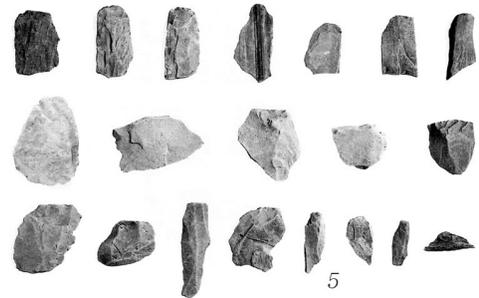


4

0 1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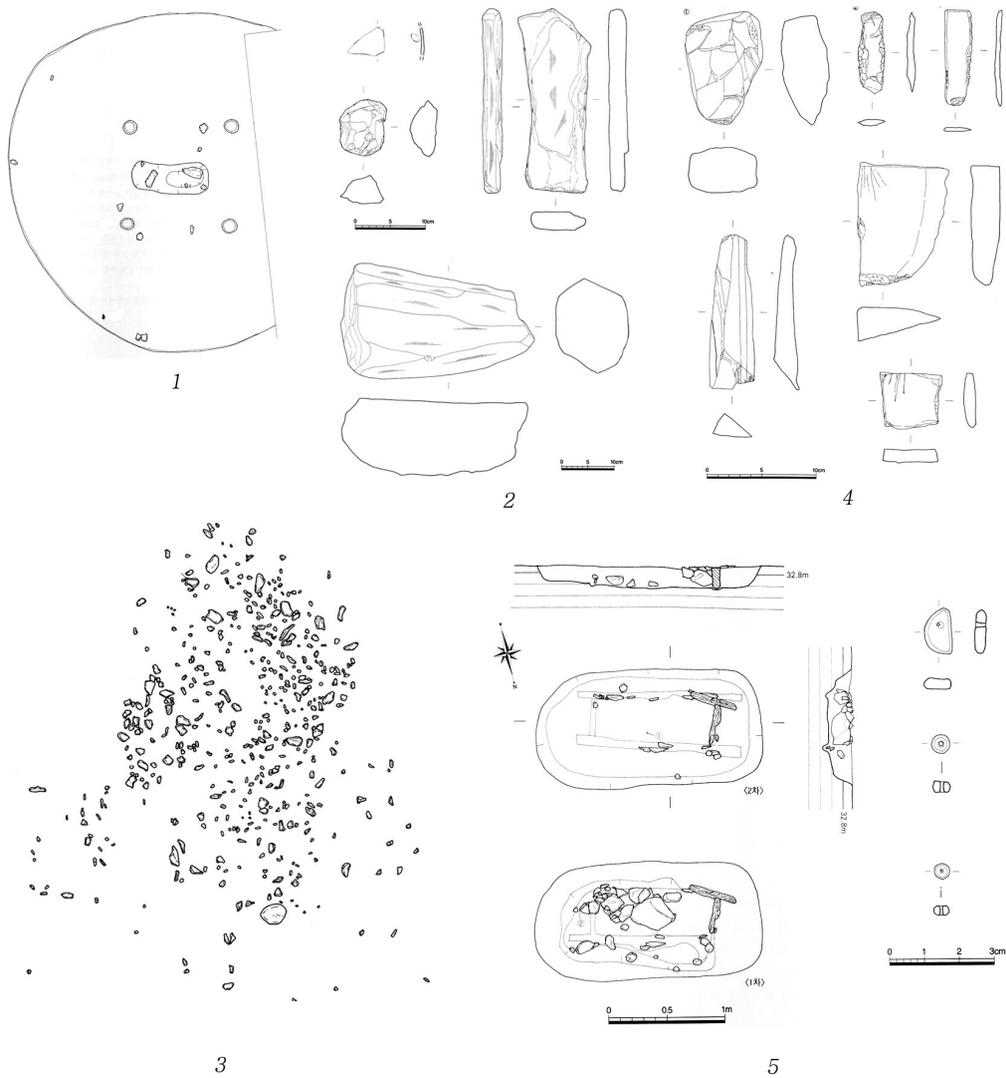


2



5

도면 5. 고령 대흥리 유적(1·2:수혈 및 박편, 3:3호 집석, 4·5:4호 집석 및 박편)



도면 6. 고령 쾌빈리 유적(1·2:2호 주거지 및 유물, 3·4:석기제작지 및 유물, 5:1호 석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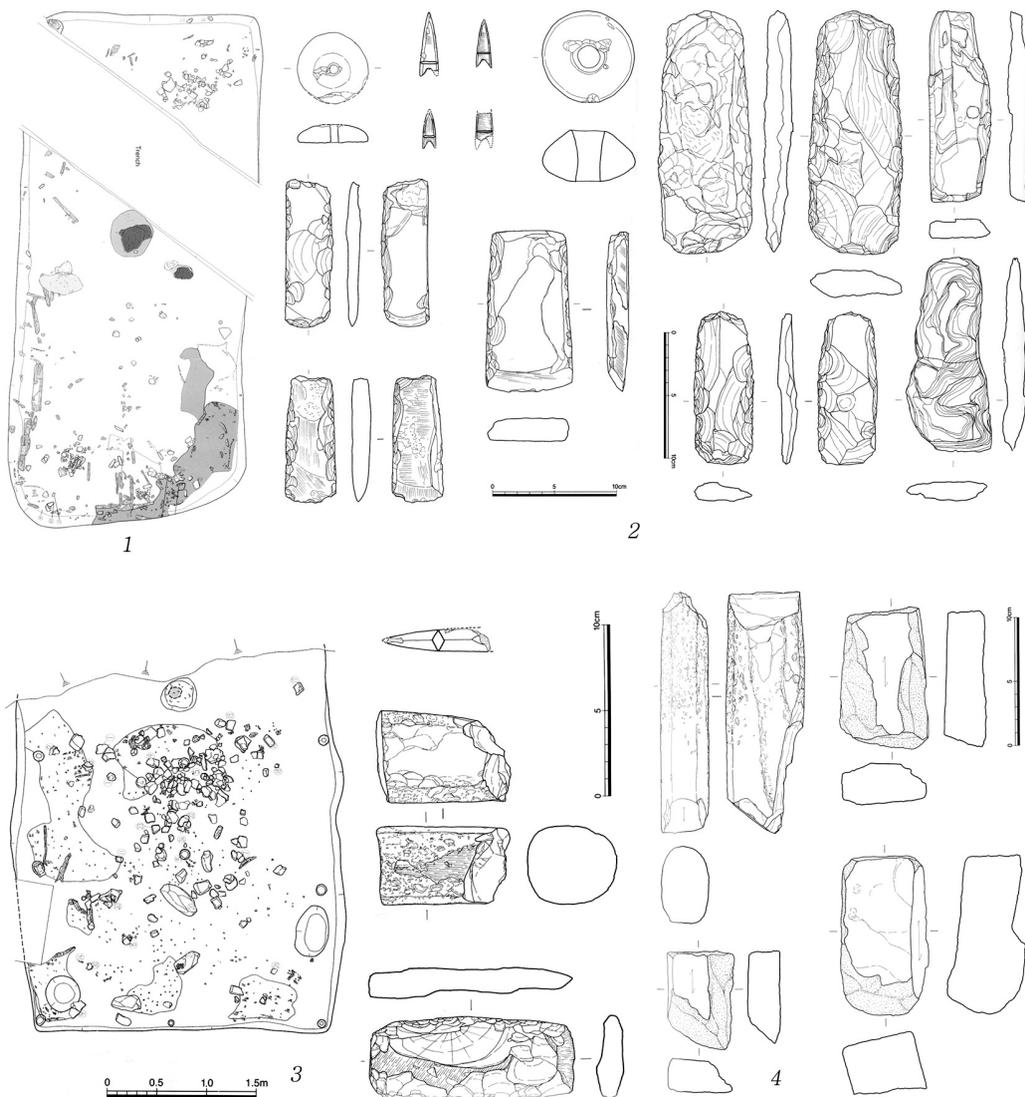
3. 대구권

지질적인 분포는 대구의 북쪽과 남쪽에 각각 백악기 하양층군 진동층이 분포하며 이를 화강암이 관입하고 있어 접촉변질대 즉 혼펠스를 산출하고 있다. 이곳에서 혼펠스의 산출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하천에서 자갈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대구 일대의 정밀한 현지답사가 이루어진다면 혼펠스 노두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까지는 없다. 대구지역의 하천변에는 수많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알려져 있으며 발굴조사도 다수 이루어졌다. 이중 취락 내에서 석기제작의 흔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작장, 미완성석기, 지석, 박편 등이 대량으로 확인된 유적으로는 서변동유적, 동천동유적, 매천동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대량으로 유구석부 미완성품이 채집된 연암산유적이 알려져 있다.

1) 대구 서변동취락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무경식석축의 공반 등으로 볼 때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형성된 취락이다. 대부분의 주거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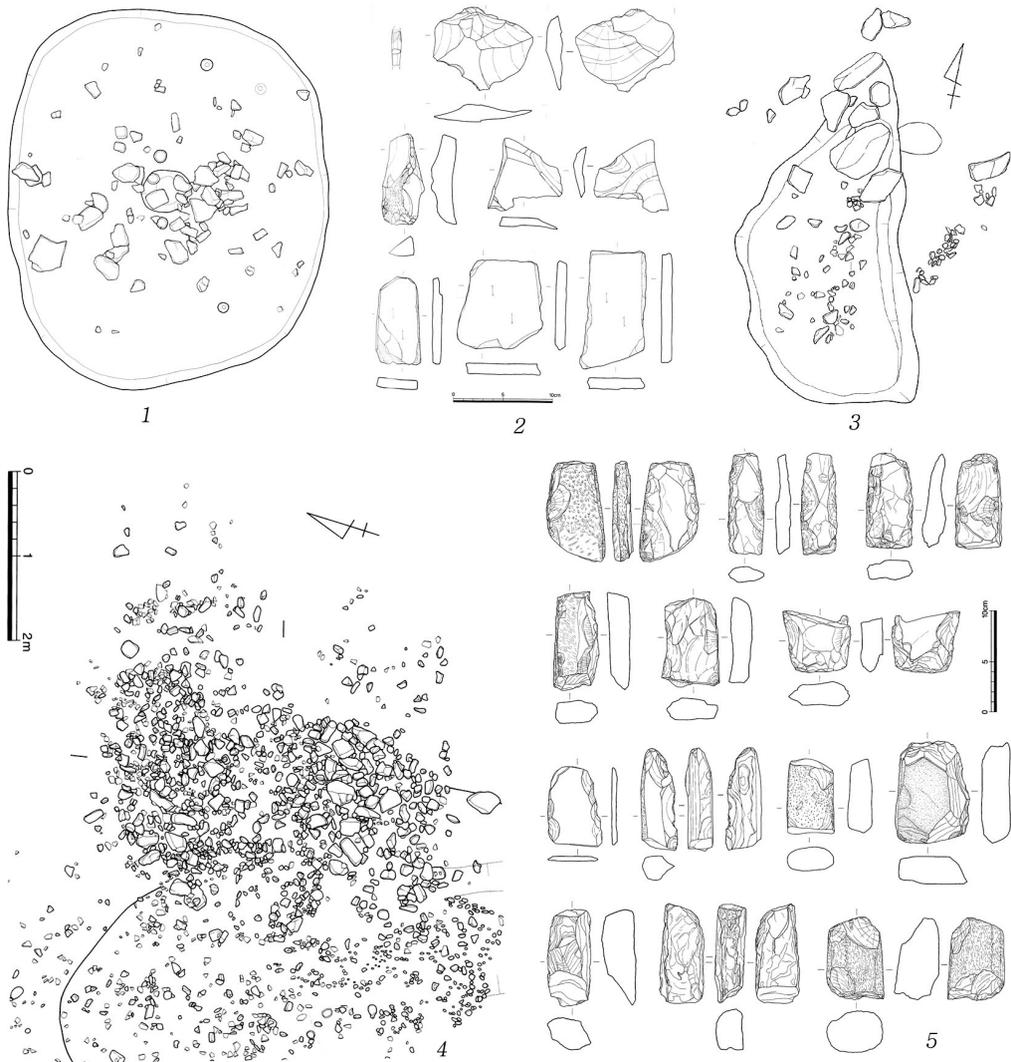


도면 7. 대구서변동유적(1·2:41호 주거지 및 유물, 3·4:2호 주거지 및 유물)

다수의 혼펠스제 미완성석기가 확인되었는데 대부분 석부류이고 석창 등이 일부 확인된다. 울산 장검유적과 마찬가지로 취락내에서 확인된 미완성석제품에 비해 박편이 소량이어서 형태를 다듬었던 제작지는 혼펠스 산지 주변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취락내에서는 간단한 타격 후 고타, 마연 을 통한 완성품으로의 제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2) 대구 동천동취락 유적(영남문화재연구원 2002)

전체적으로 송국리형주거지의 점유율이 높은 취락으로 서변동취락에 비해 후행하는 시기이다.



도면 8. 동천동유적(1·2:46호 주거지 및 유물, 3:수혈 32호, 4·5:집석5호 및 유물)

동천동취락에서는 주거지마다 다수의 미완성석기가 확인되었고, 특히 석기제작장으로 추정되는 집석유구가 다수 확인된 점과 제작시 파손품을 폐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하도에서 박편과 함께 다수의 미완성품 그리고 지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석기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전업집단으로 상정해도 좋다고 판단된다.

석기제작장으로 추정되는 집석은 할석과 礫石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량의 미완성석제품과 박편, 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礫石의 경우 정확한 석재의 분포를 알 수 없으나 보고서의 사진을 참조할 때 주로 대석과 망치돌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는 석기의 원석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유적에서도 미완성석제품에 비해 박편의 수량은 부족한 편이어서 서변동유적과 같이 산지에서 대강의 형태를 성형한 후 취락내에서 완성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정도는 취락내에서 정형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3) 연암산 유적

연암산 유적은 1962년도에 확인된(윤용진 1963·1969)이후 최근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되었다(윤용진 외 2011). 발견당시 유구석부를 대량으로 제작했던 작업장으로 주목받았다. 미완성품의 종류는 유구석부와 편인석부류로 구분되는데 다수는 유구석부류이다. 형태로 볼 때 청동기시대 후기 또는 점토대토기 단계의 유적에서 확인되는 석부와 유사하고 주변에서도 원형점토대토기가 확인되어(김양선 외 2011) 청동기시대 늦은 시기의 석기제작장으로 추정된다.

4. 소결

이상 지질학적으로 혼펠스가 산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혼펠스의 산상과 주변유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제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혼펠스제 석재는 형태와 길이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혼펠스 산지의 답사결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석재가 확인되는 지역은 고령지역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소규모석기를 제작할 수 있는 자갈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고령 의봉산 일대에서 산출되는 혼펠스가 지질학적으로 테일러스층을 이루어 석재의 조달이 용이하고, 형태적으로는 판상으로 산출되어 석검 등 도구제작에 용이하며, 인접지역에서 확인된 대규모 석기제작장인 운수리유적, 대흥리유적, 쾌빈리유적 등을 근거로 이 일대가 혼펠스제 마제석검 및 석기의 제작지임을 상정하였다.

대구권의 유적을 검토한 결과 청동기시대 전시기에 걸쳐 다수의 석기제작관련유적이 확인되며, 특히 대구지역에서 확인되는 송국리형취락은 대부분 석기를 전문적으로 제작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미완성제품과 석기제작 관련 유적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미완성석기에 비해 박편의 수량이 적어 혼펠스산지에서 직접 성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일차로 가공된 석기를 반입해 완성하는

공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석기제작관련유적에서 혼펠스제 미완성품은 고령지역과 대구지역이 석기제작 시스템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청동기시대 어느 단계에서 고령지역의 혼펠스 산지가 마제석검 제작에 이용되기 시작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한 마제석검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었을지 가설적 모델을 설정해 보겠다.

IV. 마제석검의 단계별 재질변화를 통해 본 혼펠스산지의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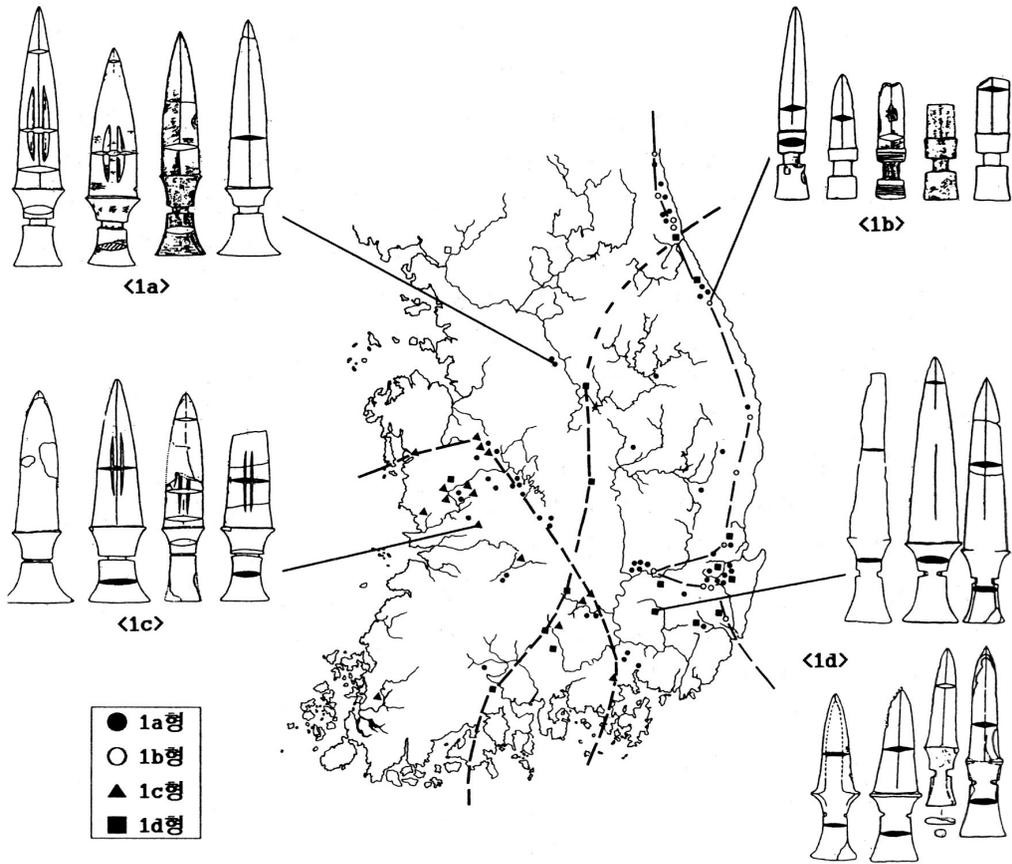
마제석검의 편년에 대해서는 여러 선학들에 의해서 논의된 바 있는데, 안재호(1991), 박선영(2004), 張龍俊·平郡達哉(2009)의 논고가 참조된다. 상기의 연구에서 마제석검의 편년적 흐름은 대체로 이단병식-유절병식-일단병식-유경식으로 정리되며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마제석검의 각 단계별 암질의 변화를 살펴 고령권 혼펠스산지의 이용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이단병식석검

남한에서 이단병식마제석검의 분포는 도면9와 같다. 박선영(2004)에 의해 세분된 형식이 제시되었는데 이 단계에는 형식에 관계없이 석검의 재질은 주로 흑색이암을 사용하였고, 부분적으로 청색이암을 사용하였다¹⁰⁾. 석재 중에서 퇴적암에 해당하는 이암은 판상으로 박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마연도 쉽게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남한의 서부, 동남부 지역에서 폭넓게 확인되어 석재의 조달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질적 분포로 인해 이단병식석검 단계에서 특정한 생산지를 상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퇴적암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영동지역과 호서지역의 일부에서는 그 지역에서 산출되는 흑색편암으로 제작되는 것으로 볼 때 한 곳에서 생산해 유통시켰을 가능성보다는 각 지역에서 석재를 조달하여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최근 이단병식석검의 미완성품으로 추정되는 형

10) 혼펠스가 산출되는 영남지방의 자료와 그 외의 자료를 실견한 결과 혼펠스로 제작된 이단병식석검은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양상의 확인은 컬러판 도록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혼펠스제 석검과 동시에 촬영된 도판(국립대구박물관 2005)을 참조하면 이단병식석검은 모두 흑색계열의 퇴적암 또는 편암이다.

11) 이단병식석검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부분은 흑색이암, 청색이암, 편암 등의 산지가 보다 정밀하게 이루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9. 이단병식 석검의 분포(박선영 2004에서 전재)

태의 유물이 취락내에서 확인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정집단의 생산보다는 단위집단에서 제작해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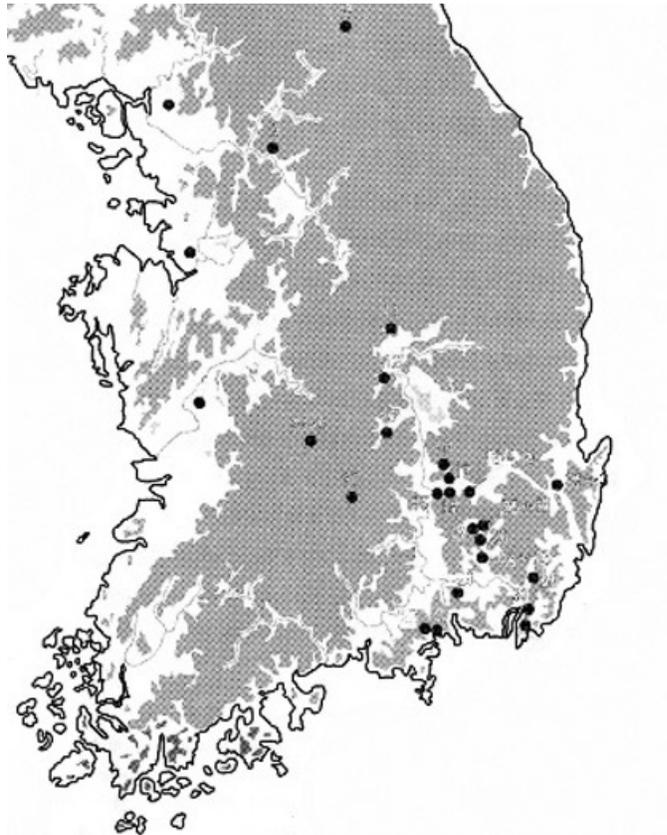
이상으로 볼 때 이 단계에는 아직 고령지역의 혼펠스로 마제석검을 본격적으로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울산, 밀양, 경주지역에서는 이단병식석검에서 일부 혼펠스제품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지리적으로 고령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아직 본격적인 유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2. 유절병식석검

유절병식석검에 대한 연구는 최근 張龍俊·平郡達哉(2009)의 논고가 주목된다. 상기의 논고에서 유절병식마제석검의 유사성을 검토한 결과 석검제작의 근원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절병식석검의 유통망·제작 정보의 전달망과 같은 석기제작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존재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석검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된 탁견으로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필자는 매장의례의 공유가 이미 석검출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싶다. 씨들의 견해와 같이 유절병식석검 단계에서 유사도는 더욱 높아지지만 기본적으로 석검의 형식은 출현기부터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초기의 이단병식석검이 유절병식석검보다 형태적 유사성이 낮은 것은 이단병식석검단계에는 석검의 기본형태는 공유하고 각 집단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이며, 유절병식단계부터 유사도가 높아지는 것은 석검의 사회적 의미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제작집단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제작집단은 일단병식, 유경식석검 단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절병식석검의 석재는 필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혼펠스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그 분포권은 도면 10과 같이 고령·대구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의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호서지역과



도면 10. 유절병식석검의 분포(張龍俊·平郡達哉 2009에서 전재)

북부지역으로 갈수록 분포는 적어진다. 전단계인 일단병식석검의 분포권보다 범위가 축소되며 뚜렷해지는 양상으로 지역권을 형성하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절병식석검의 분포권이 공교롭게도 혼펠스산지로 확인된 고령을 중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유절병식석검 단계부터 고령지역의 혼펠스 산지를 본격적으로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석검의 제작은 고령을 중심으로 위치한 청동기시대 집단에서 생산하여 유통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 그리고 분포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송국리문화권이 형성되는 호서지역과의 교류가 있었다. 즉 이 단계에는 고령을 중심으로 영남내륙과 동부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며, 아직 송국리문화가 본격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호서지역의 집단과도 교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단병식석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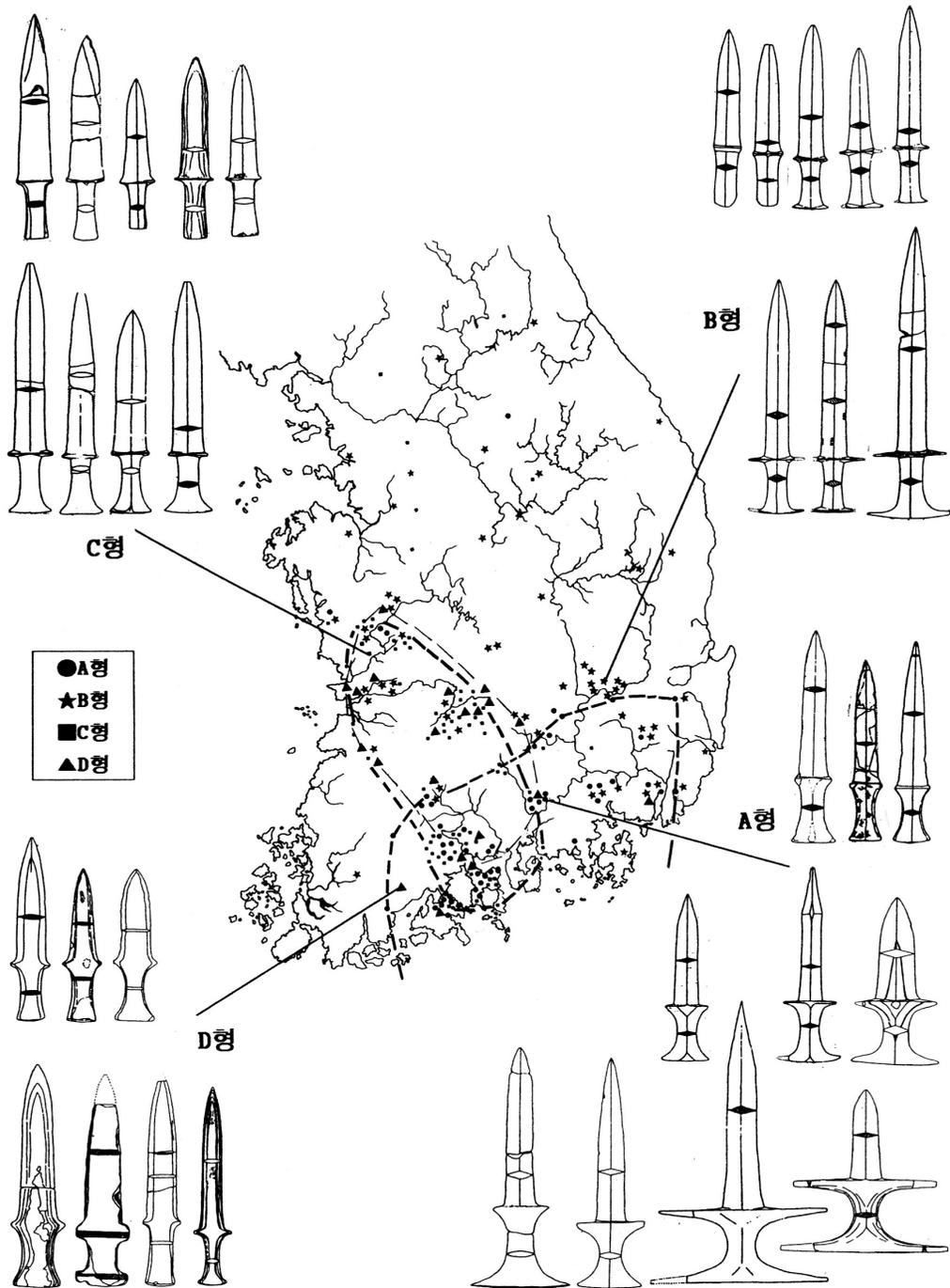
일단병식석검 단계는 송국리문화가 확산되어 정착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일단병식석검은 도면 11과 같이 주로 송국리문화권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절병식석검 단계부터 호서지역의 재지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유절병식석검이 공유되어 있었고 이로부터 새롭게 형성된 송국리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혼펠스제 석검의 유통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¹³⁾. 이 단계는 혼펠스제 석검의 수요가 가장 높아지는데 송국리문화권에서 대규모, 대량의 무덤이 축조되는 상황과 연동된다. 때문에 혼펠스제 석검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일부 재지의 흑색 또는 청색이암재로 제작하여 부장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유경식석검까지 확인된다.

4. 유경식석검

유경식석검도 혼펠스로 제작된 사례가 많다. 이 단계부터는 석검의 규격이 소형화되는데 위세품으로서의 석검이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구 연암산유적에서 확인된 대량의 유구석부 미완성품 등으로 볼 때 생산도구의 생산과 유통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2) 석기 제작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고령에 입지하고 있는 집단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곳을 통제한 다른 집단에 의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주변 청동기시대취락에 관한 연구가 집적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13) 유절병식석검단계에서 일단병식석검으로의 형식학적 변이는 비교적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석검의 재질로 본 유통적인 측면에서도 송국리문화의 형성은 재지집단의 변화에 의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도면 11. 일단병식 석검의 분포(박선영 2004에서 전재)

V. 혼펠스제 석검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모델

1. 제작

이상과 같이 유절병식석검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고령권에서 혼펠스제 석검이 제작되어 유경식 석검 단계까지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혼펠스제 마제석검의 제작자와 유통의 주체는 누구였을까. 이러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절병식석검, 일단병식석검의 형식별 분포와 각 유적에서 확인되는 미완성품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제작지에서 완성품으로 유통시켰다면 수요지에서는 미완성품의 확인이 없을 것이고, 미완성품인 반제품상태로 유통시켰다면 수요지에서 이러한 형태의 유물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석검의 가장 이른 단계인 일단병식석검 단계에는 이암제 미완성품이 주거집단내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각 집단내에서 석검을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수급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후 유절병식석검 단계부터는 취락내에서 미완성품이 확인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제작지에서 완제품으로 유통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¹⁴⁾. 그런데 일단병식석검이 지역성을 띠는 견해(박선영 2004)가 있다. 이러한 결과가 유효하다면 필자의 견해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석검이 지역성을 띠다면 제작지 또는 제작자가 달랐거나, 혼펠스제 미완성품을 반제품상태로 유통한 후 각 집단에서 마연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선영이 지역성으로 제시한 도면11을 참조할 때 각 형식이 석검 문화권에서 대체로 전반적인 분포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검은 지역성보다 안재호(1991)의 견해와 같이 시간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혼펠스제 석검의 제작 집단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자면 유절병식석검을 제작했던 집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고자 한다. 가장 큰 이유로는 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혼펠스를 다루는 기술적 수준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석검의 제작에서 일단병식석검의 제작이 유절병식이나 일단병식에 비해 어렵다는 견해(박선영 2004, 45쪽)가 있다. 그러나 실제 석검의 제작에서 이단의 병부를 마연으로 제작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까다롭기는 하지만 어려운 점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단병식석검의 재질인 이암의 경우는 혼펠스제 석기보다 제작이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마제석검의 제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길이에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석검의 제작에서 형태를 다듬는 기법으로서 양극기법 등 다양한 타격기법을 활

14) 일단병식석검 단계에서도 반제품상태의 석검이 일부 확인되므로 유통의 형태가 반제품, 또는 재료의 유통에 의한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석검의 지역성과도 연동되는 문제이므로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용하는데(황창한 2009) 길이가 길수록 파손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절병식석검 단계에서 석검의 장신화는 제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기술을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 수준은 타 집단에서 쉽게 숙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고령을 중심으로만 산출되는 혼펠스 산지의 점유와 함께 지속적으로 재지집단이 석기제작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고령 쾌빈리유적(대경문화재연구원 2009)에서 송국리형 주거지와 함께 다량의 혼펠스제 미완성석기와 박편이 확인되었고 이중 석검의 제작과정에서 파손된 봉부편도 일부 확인되었다. 특히 주거지 내에서 지석이 확인되어 마연을 중심으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재지문화 집단에서 송국리문화 집단으로 제작과정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전되었거나 제작과정의 공정을 분업화했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이러한 양상은 인접한 대구권의 송국리취락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확인되므로 앞으로 고령일대의 자료가 증가하고, 대구권의 송국리취락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으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2. 유통

고령지역에서 재지집단에 의해 석검이 제작되었다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송국리문화권으로 유통되었을까. 유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본고에서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지만 고령, 대구, 밀양, 울산지역 등의 외곽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송국리문화 주거집단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주지하다시피 송국리문화는 도작을 중심으로 한 농경집단으로 상정되는데 지리적으로 영남내륙 및 동부지역은 이러한 생계방식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지 집단과 마찰이 예상될 수도 있는 인접한 지역까지 접근할 필요가 있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필자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이 일대의 송국리문화 주거집단이 재지문화권과 송국리문화권 사이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송국리문화 주거집단은 재지문화권과 송국리문화권 사이에서 교류를 담당했으며 이후 석기를 전업적으로 제작했던 집단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교류의 대상물은 혼펠스제 석검을 포함해 각종 혼펠스제 석기들도 포함된다고 보고 싶다. 물론 교류라는 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어서 송국리문화권에서 재지의 내륙문화 집단으로의 교류 대상물은 우선적으로 농작물일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⁵⁾. 또한 고령 쾌빈리유적의 1호 석관묘에서 확인된 아마존스톤제 옥제품(도면 6)은 진주 옥방유적 등에서 제작지가 확인된 것으로 교류의 대상물 중 하

15) 이와 함께 도작에 대한 기술이전도 생각해 볼만하다.

나일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류양상은 재지문화 집단과 송국리문화 집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특히 대구지역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두드러진다. 대구 동천동유적은 송국리문화 집단에 의해 형성된 대규모 취락이고, 주변의 서변동 유적, 청도 진라리 유적, 경산 옥곡리 유적 등에서도 재지문화 집단과 송국리문화 집단의 공생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VI. 결론

청동기시대 마제석검은 출현부터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석제품이다. 단순한 도구의 의미를 넘어서 위세품으로서의 상징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위세품은 이른 단계의 이단병식석검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후 송국리문화가 확산되면서 특수한 재질의 석검이 위세품으로서 요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국리문화가 형성되기 이전에 영남동부지역에서는 혼펠스계 유절병식석검이 위세품으로서 정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절병식석검 가운데 일부가 호서지역 등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송국리문화가 형성되면서 최상의 위세품인 동검 다음으로 혼펠스계 석검이 주목되었고 이로 인해 석검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혼펠스계 석검인가? 라는 의문이 있지만 아무래도 위세품이라면 그 지역에서 산출되지 않는 특수한 재질이 가치가 더욱 높았을 것은 당연하며, 혼펠스계 석검이 이암재보다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 마연하면 광택이 나는 점도 선호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혼펠스계 석검의 석재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형태와 길이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산출되는 곳은 산지를 답사한 결과 고령의 의봉산 일대가 유일하다. 따라서 혼펠스계 석검을 제작했던 석재의 산지는 고령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 또한 이 일대에서 확인된 대규모 석기제작장과 주변유적 그리고 이곳을 중심으로 혼펠스계 석검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이곳이 석검의 제작지였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석검의 검토결과 마제석검 1단계인 이단병식석검은 각지에서 산출되는 흑색이암, 편암 등으로 주로 제작되는데 이러한 암석은 층리가 발달해 있어 대체로 가공하기 용이하다. 따라서 석검의 동검모방설이 인정된다면 가공하기 쉬운 재질을 선택해 모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는 고령지역의 혼펠스가 마제석검제작용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이단병식석검에서 혼펠스제품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일부는 이곳의 혼펠스를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제석검 2단계인 유절병식석검은 고령, 대구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의 동남부지역을 주 분포권

으로 한다. 유절병식석검은 대부분 혼펠스로 제작되었으며, 형태의 유사성으로 볼 때 제작자 또는 집단이 동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단계에 고령의 혼펠스산지가 석검제작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단계의 유절병식석검은 고령일대에 위치한 집단 또는 이곳을 통제했던 집단에서 완성한 후 동일문화권내에서 주로 수급하였으며, 일부 호서지역과 강원지역은 교류를 통해 공급되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제석검 3단계인 일단병식석검은 송국리문화가 성립되어 확산되는 시기와 궤를 같이한다. 이 단계부터 이곳에서 제작된 혼펠스제 석검은 본격적으로 송국리문화권으로 수급된다. 이러한 양상은 마제석검 4단계인 유경식석검까지 지속되다가¹⁶⁾ 석검의 쇠퇴기 이후에는 대구연암산 등지에서 확인되는 대량의 미완성제 유구석부류 등으로 볼 때 유통 제품이 생산, 가공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석검의 제작집단은 유절병식석검을 제작했던 재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령 쾌빈리유적에서 확인된 송국리주거집단의 석기제작장 등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기술이전이나 분업의 가능성도 제시된다. 또한 고령을 중심으로 대구권, 울산권에 분포하고 있는 송국리형 주거집단에 대해서는 이러한 생산품을 송국리문화권으로 유통하는 전초기지로 상정하였다. 특히 대구지역의 송국리형 취락은 대부분 석기제작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석기제작을 담당했던 전업집단으로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구지역의 취락내에서 확인되는 미완성제품이 대부분 자갈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것이며, 제품에 비해 박편의 양이 적어 고령일대에서 반제품상태로 반입해 완성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하였다. 즉 고령과 대구지역은 석기제작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상정된다. 반면 송국리문화권에서 반입되는 교류의 대상물로는 농산물, 옥제품 등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송국리문화는 한국청동기문화에 있어서 도작농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국리문화는 남한의 호서, 호남, 서부경남 지역 등 지질적으로 충적지가 넓게 형성되어 농경에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특징이 있다. 이 시기부터 대규모 무덤이 축조되고 부장유물도 다양해지는 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무덤의 축조와 부장유물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데 혼펠스제 석검의 생산과 유통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석검을 제작할 수 있는 혼펠스 산지를 확인하려는 단순한 목적에서 출발하게 되었지만

16) 일단병식석검과 유경식석검 단계에서는 혼펠스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재지의 흑색이암 등 퇴적암을 사용해 석검을 제작한 경우도 일부 확인된다. 이것은 혼펠스제 석검의 수급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대용품으로서 제작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17) 물론 유절병식단계부터 혼펠스제 첨근장신촉, 주상편인석부류 등 다양한 혼펠스제품이 고령을 중심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구, 울산지역 등 기타 지역에서도 소형 제품을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혼펠스가 자갈로 확인되므로 전반적인 혼펠스제 석기류의 제작과 유통에 관해서는 별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알려진 대규모 석기제작장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석검 및 석기를 제작하는 전업집단까지 상정하였으며, 나아가 유통의 모델까지 가설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몇 가지 견해를 나름대로 제시하였지만 오히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부분을 수면위로 노출시켰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를 통해서 지질학적 성과와 고고학적 성과를 접목하여 산지를 추정하였고 청동기시대 석기의 유통에 대한 가설적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싶다.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검증 등 여기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

후기

본고는 청동기학회 석기분과 동학들과 고령답사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게되었다. 당시 주변유적과 의봉산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주신 대가야박물관 신중환관장님께 감사드린다.

參 考 文 獻

-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8, 『高靈 大興里遺蹟』.
- 국립대구박물관, 2005, 『사람과 돌』, 특별전 도록.
- 김양선 외, 2011, 「大邱 燕巖山遺蹟 出土 土器」, 『考古學論叢』, 慶北大學校出版部.
- 대경문화재연구원, 2009, 『高靈 快賓里遺蹟』.
- 朴宣映, 2004,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박양대 · 윤형대, 1968. 울산도폭지질도(1:50,000)설명서, 국립지질조사도.
- 배덕환 외, 2010, 『송국리형주거지 집성 II』, 서경문화사.
- 聖林文化財研究院, 2009, 『慶州 龍江洞 靑銅器時代 聚落遺蹟』.
- 손준호, 2010, 「청동기시대 석기 생산」,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쟁점』, 청동기시대 마을풍경 특별전 학술심포지엄, 국립중앙박물관.
- 신중환, 2008, 「신사시대의 고령」, 『고령문화사대계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 안건상 · 오창환 역, 2000, 『변성암석학』, 시그마프레스.
-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論文.
- 양승영, 1998, 『지질학사전』, 과학연구사.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川洞遺蹟』.
- _____, 2002, 『大邱 西邊洞遺蹟』.
- _____, 2010, 『大邱 梅川洞遺蹟』.
- 蔚山文化財研究院, 2005, 『蔚山屈火里長劍遺蹟 I』.
- _____, 2006, 『蔚山屈火里長劍遺蹟 II』.
- 尹容鎭 外, 2011, 「大邱 燕巖山 出土 石斧」, 『考古學論叢』, 慶北大學校出版部.
- 이보영, 2008, 「고령군의 지리적 환경」, 『고령문화사대계1』,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편.
- 李容鎰, 1994, 『堆積巖石學』, 도서출판祐成.
- 張龍俊 · 平郡達哉, 2009, 「有節柄式 石劍으로 본 無文土器時代 埋葬儀禮의 共有」, 『한국고고학보』 72, 한국고고학회.
- 정창희, 2006, 「지질학개론」, 박영사.
- 황창한, 2007, 「巖石의 分析方法과 考古學的 適用」, 『東亞文化』 2·3,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 _____, 2009, 「靑銅器時代 石器 製作의 兩極技法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63,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10, 「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편마암류 석기의 산지연구」, 『야외고고학』 9,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The current view study on a place of production presumption of hornfels-polished stone dagger in the Bronze Age

Chang-han, Whang

Abstract

The Bronze Age's polished stone dagger is a stone work that indicates socially various changes from the advent. The polished stone dagger one-level produces to use mainly a black mudstone in each group. From next step, it is assumed to make hornfels and circulate it. The hornfels place that can produce stone dagger is confirmed that it is unique to all over Goryeong's Uibong mountain. Also, the production place of hornfels stone dagger criticize and correct all over Goryeong, when it seems a large stone manufacture place that confirmed a place of production. The hornfels of production place of Goryeong regularly used from polished stone dagger two-level. A stone dagger three-level is like the period that is existed and spread Songguk-ri culture. From this level, the hornfels stone dagger is produced this was regularly supplied Songguk-ri range. Goryeong and Daegu region are possible a close relationship when making stone works. After decline of a stone dagger, it is made centering around production and process. The production group of a stone dagger is highly possible for the talent to have made a stone dagger two-level, but when we see the stone works place of Songguk-ri's habitation group, we assumed it will be possible to a certain extent technique moving or the possibility of division. Especially, Songguk-ri settlement in Daegu area is made out to mostly have run stone works production place. The stone works produced here are presented the possibility to flowing like an advance base Songguk-ri group located inland centering Goryeong and Daegu.

Key words : a polished stone dagger, hornfels, a place of production, mudstone, a stone manufacture place, flow, exchange